

세종대학교 2023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예시 답안

1. 제시문(가)의 필자의 관점에서 제시문(나)의 주장을 반박하시오.(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나)의 필자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이라 해도 집단에 소속되어 그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이기적이고 부도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밥값 내기 축구 시합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 교묘한 반칙을 쓰는 행위를 그 예로 들었다. 선수 개인은 도덕적이라도 밥값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모든 축구 시합에서 선수들이 꼭 반칙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경기를 하고 승리하는 경우도 많다. 즉 집단이 어떠한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가)의 국제사면 위원회의 직원들이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거나 투옥된 사람들을 구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집단이라 하여도 도덕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보다 집단의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나)의 주장은 일반화하기 힘들다. (487자)

2. 제시문(다)의 황만근, 민 씨, 이장,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제시문(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하여 각각 분석하고 이장과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시오.(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가)에 의하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는 힘이 있는데, 이 능력을 약자를 돕거나 단체 행동을 하는 데에 쓰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다. (다)의 황만근이 전자라면, 이장은 후자에 해당한다. 황만근은 동네의 굶은일에 앞장섰고, 자신은 빛이 없음에도 농민 총궐기 대회와 같은 단체 행동에 참석하여 농가 부채 탕감을 촉구하고자 했다. 반면 이장은 황만근이 고장 난 경운기를 끌고 궐기 대회에 참석하도록 조정했으면서도 자신은 안전을 위해 경운기가 아닌 트럭을 타고 참석하는 이중적 행동을 한다. 황만근의 행동이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희생하는 이타적 행위라면 이장의 행동은 타인을 이용하고 기만한 이기적 행위라고 하겠다.

민 씨는 돌아오지 않는 황만근을 걱정하며 이장의 이중적 행동을 비판한다. 이러한 민 씨의 행동은 (가)에서 말한, 약자인 이웃을 대신하여 주장하거나 동질감을 느끼며 돕고자 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 씨 역시 황만근에게 일을 떠맡기는 동네 사람이나 현 경운기를 끌고 궐기 대회에 가려는 황만근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단의 비도덕적 행위를 묵인해왔다고 하겠다.

동네 사람들은 황만근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도 그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실종된 황만근을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는 (나)에서 말한 대로, 사회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한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이다. 이처럼 이장과 동네 사람들은 설사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황만근의 희생을 악용하거나 묵인하는 이기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를 했으며, 심지어 황만근을 누구도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880자)